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5면

## 반려동물 유기시 벌금 강화해야



강북구의회 유인애  
(번1동, 번2동, 수유  
2동, 수유3동) 의원이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반려동물 관  
리 등에 대해 5분 자  
유발언을 실시했다.

유인애 의원은 등  
록대상인 '개'를 사육하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경우와 고양이 등 기타 반  
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구체  
적인 기초자료가 없어 관리가 잘 안 되  
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특별시 동물보  
호 조례에는 자치구청장은 동물복지 계  
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  
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성 예방과 방지대책, 그리고 교육프  
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물었다.

또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등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  
토를 요청하고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 구 2015년 8월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개 214  
마리, 고양이 56마리, 기타 15마리 등 총  
285마리가 유기되어 주인에게 반환된 것  
은 67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락사  
나 자연사, 입양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가  
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되며 반려동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  
고나 등록을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하다"며 반려동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에 대  
한 조사도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방안  
과 자체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다중이용시설 이  
용에 대한 공공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애견  
카페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기동물을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시에는 벌금강화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물보호  
센터, 동물병원, 동물미용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제안했다.

동북일보 4면

## 5분 자유발언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위한 관리체계 확보 필요하다

유 인 애 의원  
(새누리당/번1·2동, 수유2·3동)

강북구의회 제1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은『반려동물 관리』 등에 대  
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인애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가 중요  
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올  
해 상반기에는 동물 매개 전염병관리가 사  
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히 늘어  
나고 있고, 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사육 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의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염병 예방접종 일정,  
사체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  
육 등 공공 위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북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  
한 병원성 예방과 방지대책, 그리고 교육프  
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유기동물과 반려동  
물 등 사체 처리문제에 대하여 현행 동물



▲ 유인애 의원.

의 사체처리 절차는 민원인 신고를 통해 환  
경미화원 현장 방문 수거 후 적환장내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  
리업체가 소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  
는 것을 적극 검토를 요청하며, 지자체 단  
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  
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강북구 2015년 8월말 현  
재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개 214마리,  
고양이 56마리, 기타 15마리 등 총 285마  
리가 유기되어 주인에게 반환된 것은 67마  
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락사나 자연사,

입양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반려동  
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르  
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하  
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려동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  
사도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방안이 있  
을 수 있고, 자체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유기동  
물은 전염병 및 환경오염의 위험요소가 있  
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공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며,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반  
려동물 테마파크, 애견카페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기동물을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시에는 벌금강화 등 소유  
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물보호센터, 동물병  
원, 동물미용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의 입장은 어  
떤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박은주 기자)

◆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 “반려동물 관리 유기시 벌금 강화해야”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12일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려동물 유기시에 물리는 벌금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개’를 기르는 소유자는 5,585명이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동물 등록 두수는 6,927마리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대상인 ‘개’를 사육하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경우와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초 자료가 없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복지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사육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염병 예방접종 일정, 사체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 공공 위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8월말 현재 개 214마리, 고양이 56마리, 기타 15마리 등 총 285마리가 유기되어 주인에게 반환된 것은 67마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반려동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유기시에는 벌금강화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미용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자체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반려동물 관리 실태” 이상 없다

유인애 의원, 5분 발언 통해 반려동물 보호 관리 관련 질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 사육 상식, 관계법령, 훈련방법 등 교육 필요성 강조

유인애 의원이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관리에 구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현재 또 하나의 가족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 등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만을 등록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개’를 기르는 소유자 수는 5,585명이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동물 등록 두수는 6,927마리.

유 의원은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대상인 ‘개’를 사육하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경우와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없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자치구 청장은 동물복지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동물 매개 전염병관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려동물

가 소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덧붙여 “주민들의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유기동물은 전염병 및 환경오염의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공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애견카페 등의 공간을 마련해 유기동물을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인애 의원이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